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의 김종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부작으로 이루어진

박완서의 매우 재미있는 소설

엄마의 말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말뚝

1, 2, 3이 있다는 얘기죠.

박완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1931년생입니다.

이분이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70년에 장편소설 ‘나목’ 이

여성동아 장편소설 모집에

당선하면서부터였죠.

그러니까 딱 40세가 되었을 때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학을 국문과를 나왔습니다.

국문과를 나오지 않아도

작품을, 좋은 작품을 쓰는

작가들이 많습시다만

그러니까 늘 작품에 대한

갈증 같은 것이

이 작가에게 내재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40살이 넘어서 작품을 썼는데

이병주 작가 같은 경우는 44살에

데뷔작을 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이분은 많은 좋은 작품을 썼고
작가로서의 인품도 훌륭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로부터 여성 작가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80년대가 이념의 시대였고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는데

90년대로 넘어가면 그 시기가
다양성의 시대 또는 다원주의의 시대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와 같은 호명법
그와 같은 호칭과 관련해서는

여성 작가들이
특히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여성 작가들이 문단에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30대 후반의 여성 작가가
실패한 사랑 이야기를 소설로 쓴

말하자면 신경숙, 은희경,
김인숙, 공지영 이런 작가들

이런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읽히고

그래서 여성 작가의 시대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박완서 소설가는
지금 제가 거명한 작가들보다는

훨씬 연배가 위이긴 합니다만

70년에 등단을 하고
70년대, 80년대를 가로지르면서

90년대를 넘기면서까지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했고

또 그와 같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작품 속에 잘 담아냈습니다.

6·25전쟁, 산업화 시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물신주의, 황금만능주의 같은 것

이런 것이 순수한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하고 억압하게 되는가

또 그와 같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작가 자신이 겪었던 체험을

생생한 증언으로 보여줌으로써

소설의 설득력을 얻는

그렇게 해서 체험으로써의 소설이

어떻게 좋은 성취를 나타낼 수 있는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등단한 이후에 박완서가 쓴

작품들을 보면

그 역사의 질곡 속에서

상처받은 개인의 삶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큰 흐름이죠.

그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가고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느낌이

와 닿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소설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그 역사 속에서 억압받고 상처받고
아프고 슬프고 힘든 개인의 삶

실제적으로 그 삶을 보여줄 때
그것이 우리 가슴에 와 닿게 되는 거죠.

박완서의 작품은
언제나 개인과 역사의 지평 속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소설들을 썼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평적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박완서의 작품을 대체로
3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또 한국적 상황 속에서

근대화, 도시화, 또 공업화
이런 전개 과정에서

인간과 인간이 부딪히면서
또 인간과 그 시대상이 부딪히면서

어떤 마찰을 일으키는가

혹은 도시의 중류계층의 삶이

얼마나 허구에 차 있고

소시민적 행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이 삶의 환경이

나아지는 가운데서

인간은 얼마나 더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산업 사회는 이윤을 추구하고

물질문명의 궁극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외형에서는

그 시대 사회가

발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인간성을 훼손하는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박완서는 이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아주 통쾌하게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의미에 있어서

소설이 하나의 해부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박완서 소설의
특성을 말하자면

앞서 잠깐 설명해 드렸습시다만

여성주의 문학의 전형이라고 하는 관점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서 있는 여자’

이런 작품들은 바로 여성 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렀던 경우입니다.

사회학을 전공한 여성학자들이
문학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설에 있어서 페미니즘 논쟁이
한창 활발하게 벌어진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작품들이
산출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세 번째 박완서 소설의
중심적인 주제는 분단 문제입니다.

박완서는 개성에서 시작해서
서울에 이르는

어떤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성상인이라는 이와 같은

어떤 성장 배경 속에서

전쟁을 겪으면서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독특한 시각

이런 것이 소설 속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쟁, 분단 소재의 작품들 가운데

가족의 상처

또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을 그리는 데

박완서의 세 번째 문학적 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등단작품인

‘나목’이라든지

‘목마른 계절’ ‘엄마의 말뚝’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이것들 다 장편들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박완서 소설이 보여주는

어떤 산업화 세대라든지

중산층의 허위의식이라든지

여성의 가족 문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분단 문제를 보여주는

다양한, 그러니까 꼭 한 작품 속에
한 주제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이 거의 복합적으로
함께 드러나는 것이

박완서 소설의 하나의
특정적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박완서의 여러 작품,
그 소설의 밑바닥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체험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누구나 체험이 있다고 해서
좋은 소설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체험을 이야기로 만들 때
자기 시각이 작동하고

그 체험이 어떤
하나의 소설적 해부의 칼날이 되어서

그 시대의 상황을 바닥에 이르도록
투시할 수 있게 해 주는

작가적 재능이 필요한 것이죠.

박완서는 이것을 가졌던 작가였습니다.

한 작가가 또 한 여성이

시대의 질곡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을 겪고 지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그 삶이 화해롭거나

평화롭다고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어쩌면 그것은

생생한 악몽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혹한 기억 같은 것이죠.

‘엄마의 말뚝’ 도 어머니와 관련된

아픈 기억들 속에서 생산된

이야기 구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녀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추구해 간다는 것은 모녀체험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딸이었고

또 딸을 가진 어머니였고

이런 세대의 중간에 서 있는

어떤 체험적 사실을 가졌을 때

비로소 훨씬 더 깊이 있게

소설 소재를 발굴하는

그런 지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박완서 소설의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모녀 상이란 것은

이렇게 중요한 문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 작가가

박완서가 쓴 이와 같은 소설을

쓰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쓸 수는 있겠지만

그와 같이 좋은 작품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역사와 현실, 개인과 과거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포지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작가에게는 이것이

그 어려웠던 삶이
하나의 좋은 소재를 탄생하게 하는

말을 거칠게 하자면
문학적 의미에서

특권, 축복 같은 것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의 말뚝’ 1, 2, 3

1편은 1980년에, 2편은 1981년에

그리고 3편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1년에 쓰였고

앞의 두 편은 ‘문학사상’ 이란 잡지에
그리고 맨 마지막 작품은

‘작가세계’ 라는 잡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10년에 걸쳐 발표된 이 소설들은

서로 연결된 스토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각기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편은 일제강점기에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택인 개성을 떠나서

서울의 문밖인 현저동 꼭대기에
6칸짜리 기와집을 마련하는

그 과정을 그립니다.

2편은 말년에 사고로 넘어진 어머니가
약간의 혼수상태를 겪으면서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10년 후에 쓰인 3편은
7년을 더 산 어머니의 일상

그런 어머니가 타개한 후에
남겨진 가족들이

그 어머니의 죽음을
수습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연작의 가장 큰 특징은
어머니의 삶이 전적으로

서술자인 딸의 회상, 또는 해석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서사에서
어머니와 딸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설인 것이죠.

바로 이 대목이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박완서라는 작가가 처해있었던
그 상황 때문에

충분한 소득을,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말뚝’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전란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박완서가 바라보았던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라는 것은

단순한 모녀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의
삶의 이야기이고

또 어머니와 딸의
작고 단단한 일상들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결정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라 하겠습니다.